

‘한국의 바다’에서 부딪친 책의 물결

외국인을 위한 필독서 목록 필요... 실질적인 주제 다룬 책 많았으면

크리스틴 오토
교육방송 리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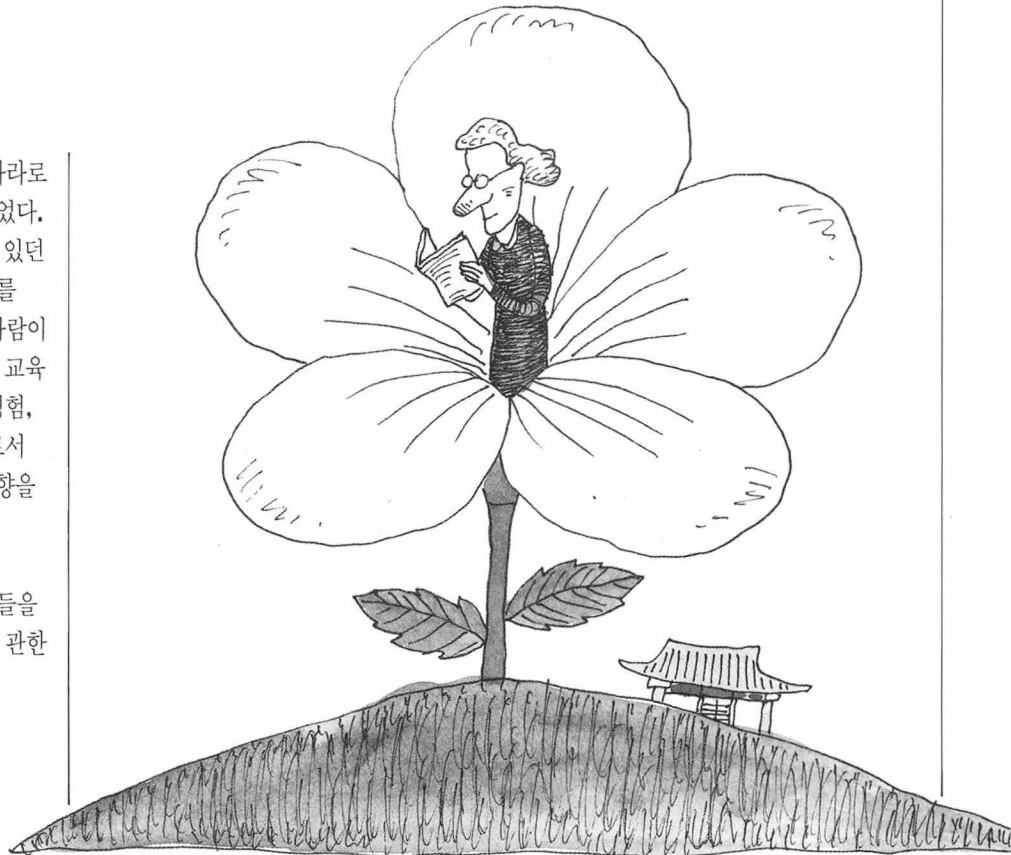
크리스틴 오토씨.

내가 한국에 온 것은 1981년이다. 한국이 3차산업 위주의 국가이던 데서 정보사회가 되고 현대화된 세계에서 아시아 이웃국가들

중 경제·문화적인 성취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잘 지켜볼 수 있었다. 특히 이렇듯 초고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기간에,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향해왔는지 멈추고 생각해본 사람이 있을까? 나는 한국에 와서 법조계와 교육 분야에서 일했는데, 일하면서 얻은 경험, 만난 사람, 읽었던 책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이라는 바다를 향해하는 여러 방향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처음 한국생활을 시작할 때 목숨처럼 의지했던 책들, 정기간행물들을 소개한다.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인에 관한 글을 쓸 때 유용할 수도 있는 몇가지 아이디어를 적어본다.

모든 답이 있는 요술같은 책이 있길
한국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싶은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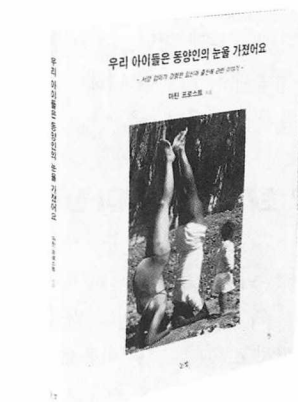
한 프랑스여성의 출산경험

마틴 프로스트 지음 《우리 아이들은 동양인의 눈을 가졌어요》

전 프랑스 대사관 문화정책담당관이었던 마틴 프로스트 여사의 이야기 사진집. 임신 중에도 요가와 수영을 하면서 출산을 준비하고, 명상을 통해 태아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과정을 50여장의 사진과 함께 보여준다.

임신중에는 운동은커녕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조차 피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엄연한 우리나라에서 만삭의 마틴 여사가 요가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모습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만삭의 배를 하고 남편과 등을 맞대고 물구나무로 서있는 표지사진부터 ‘위험천만’한데 단풍 든 가을 풀밭이나 결이 고운 모래위, 자갈밭, 바닷가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마틴과 그의 가족들은 자연의 일부처럼 평화롭기 이를 데 없다.

임신기를 보내는 방식과 출산, 모유로 아이기르기, 아이버릇 들이기, 인생관 등에 관한 마틴 여사의 체험이 녹아든 짧지만 간명한 글은 작은 일깨움을 준다.



마틴 여사는 17세부터 요가를 배우기 시작, 인도에서 요가사범 자격증을 딴 바 있으며 수영교사를 지내기도 했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파리대, 하버드대, 서울대에서 영어·일본어·한국어를 공부했다. 4년간 한국에서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파리7대학 한국어과 교수로 부임, 지난 1일 한국을 떠났다.

눈빛/B4/138면/10,000원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가보는 곳은 호텔 로비이다. 그곳에는 여러가지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시내지도도 있고, 어디를 가려면 어디서 차를 타야 하는지 같은 교통에 대한 정보, 책방을 비롯해 각종 정보가 들어 있다. 책방은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후, 또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꼭 들르게 되는 곳이 아니겠는가?

나처럼 장기간 한국에 살면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처럼 북적거리는 거대도시에서 살고 일하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 대부분을 건문이 넓거나 학식이 있는 지인(知人)에게서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항상 한권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요술과 같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재미있는 일이다.

한국에는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된 책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책들은 한국의 주요도로, 시설, 여행에 관한 것이 많고, 로열아시아틱 소사이어티의 출판물과 HEK Communications가 내는 월간지 《서울》은 한국의 역사·문화에 관한 기본지식을 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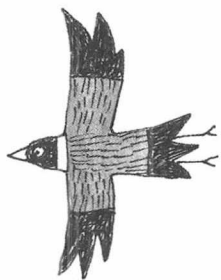
있다. 미국상공회의소가 내는 정기간행물과 《Business Korea》는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사업계 전반과 사업 관행, 예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적인 책은 후버연구소, 그밖에 한국재단, 한미우호협회 등에서 내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짜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독특한 경험을 모은 책이 나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병원 이용을 예로 들면, 한국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치료의 기술적인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 의사가 현재 시술중인 치료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말해주기를 꺼릴 경우 어떻게 하나? 더 나쁜 경우는 당신이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이 환자를 24시간 보살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어떤 특정 병원이나 그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병원의 치료과정, 서비스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만을 써도 한두권의

우주 소년 아톰을 아는가?

《아톰의 철학》을 읽고

김소진 · 소설가



책은 충분히 되리라는 말이다.

실질정보를 담은 책을

한국은 국제사회에 내놓을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즉 아시아적인 경험, 외국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분야와 규모, 물밑듯이 넘쳐나는 서구음식 체인점, 유구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적·문화적 유산, 오락 등. 이제 한국은 외국에 창문을 열어보이던 시절은 훨씬 지난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인이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아주 많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에 외국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 오랫동안 산 외국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서구사회로 뿌리를 옮기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방향을 바꾸어 아이들이 비교적 값이 비싼 서양의 패스트 푸드를 좋아하고 사달라고 조를 때 한국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좋은 책거리가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을 쓰면서 서울에 살던 초기 내가 읽었던 책들을 생각했다. 초보자 시절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Myung-do's Korean과 에센스 사전을 들고 다녔다. 그 다음 단계에는 《삼국지》와 귀양살이의 슬픔을 시로 쓴 16세기 대사인 정철의 시조를 읽었다.

한국을 이해하는데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권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 내가 아는 고전에 관한 얘기들도 영어회화 시간에 주워들은 것이 많다. 좀더 많은 한국고전이 번역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 관해 알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필독서 목록을 다시 만든다면 고전을 줄이고 실질적인 주제를 다룬 것들을 더 넣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차량 등록을 하려면?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자격조건, 집을 얻을 때 계약은 어떻게?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또는 좋은 보험회사 찾기 등. ❖

70년대 초 나는 먼지만 폴폴 오르는 호주 머리에 어찌다 십원이나 이십원쯤 걸리면 (약간의 망설임 끝에) 주전부리를 하기보다는 서울이발소 건너편 돌산만화가게로 달려갈 만큼 지독한 '미아리 만화방 키드'였다. 한때는 피와 살로 된 사람이 아니래도 좋으니 만화 속의 아톰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꿈 속에서조차 아톰인지 강릉로봇인지 하는 것을 따라 엉거주춤 날다 떨어져 사타구니에 오줌방울을 짚끔거린 아이였다.

그 시절 이렇게 내 정신적 허기를 꺼주는 구실을 한 아톰이 일본의 국민적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가 만든 캐릭터임을 안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아톰뿐 아니라 '흰 사자 레오'와 '사파이어 왕자' 등 낯익은 이들 역시 그의 붓끝에서 벗어난 캐릭터였다니...

일본의 아동문화연구가 사이토 지로가 데즈카 오사무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아톰의 철학》(손상의 옮김)을 읽는 일은 이렇듯 맥빠짐과 부러움의 감정을 교차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40여년 동안 15만 장의 만화를 그려낸 데즈카의 작품세계는 <굶주린 자의 블루스> <종이요새> <대부의 아들> 등에서 도드라지듯 전쟁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허약체질의 아이로 태어나 무자비한 폭력과 광기가

이 책을 읽는 일은

맥빠짐과 부러움의 감정을

교차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유년시절

내 정신적 허기를

꺼냈던 아톰이

일본의 국민적 만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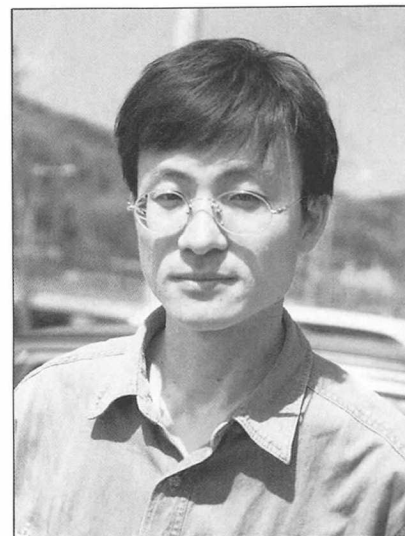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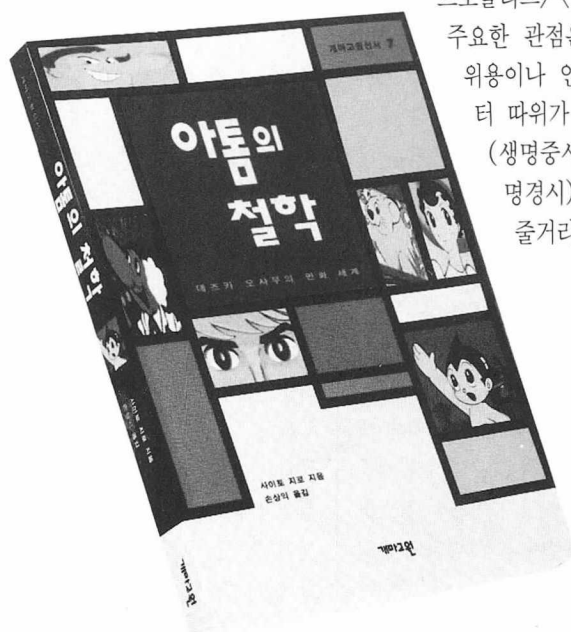
데즈카 오사무의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난무하는 전쟁기를 혹독하게 겪어낸 그로서는 사뭇 자연스런 일이다.

이런 반전사상이 밑거름이 되어 인간성과 기계의 통일(우주소년 아톰), 인간성과 자연의 조화(밀림의 왕자 레오), 남성과 여성의 양성공유(사파이어 왕자)를 강조하는 초기의 독특한 휴머니즘적 색채가 형성된 듯하다.

그 이후로 펼쳐진 데즈카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단연코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요약됨 적하다. 데즈카 'SF 삼부작'으로 일컬어지는 <로스트 월드> <메트로폴리스> <넥스트 월드> 등에서 주요한 관점은 막강한 로봇군단의 위용이나 인간을 지배하는 컴퓨터 따위가 아니라 '착한 사람(생명중시)과 나쁜 사람(생명경시) 쪽이 얽히고 설키는 줄거리'에 놓여 있을 뿐이



김소진씨.

다.

이런 생명중심 사상은 변신 모티브를 통해 인간 내면을 탐구한 전기(傳奇) 작품들(<뱀파이어> <제삼의 눈> <도로로>)을 비롯해 실제 의학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의사의 길을 포기한 체험이 바탕에 깔린 의학 만화 <블랙 잭>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제로 한 데즈카 만화의 총결산 <불새>와 <붓다>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래도 데즈카의 만화에 철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시간 죽이기용 싸구려 철학이거나 황당무계한 철학이라고 험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가지, 일본 막부시대를 밑으로부터 재해석했다는 <양지년의 나무>나 나치즘의 광기에 휩쓸린 인간들의 운명을 그린 <아돌프에게 고한다>는 거의 사족에 해당하거나, 피압박민족의 경험이 없는 지식인 데즈카의 심각히 훼손된 역사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 아쉽다.

일본의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과 그 맥락으로서의 황군(皇軍) 의식으로 말미암아 심대한 고통을 당한 우리로서는 단지 정의감과 열정이 넘치고 임무에 성실한 개화기의 일본 젊은이들을 등장시키거나, 일본 스스로의 전범행위가 아니라 머나먼 나치즘을 도마 위에 올림으로써 반전주의와 휴머니즘을 얘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웬지 한가롭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

개마고원/A5/238면/8000원